광주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논란 '뜨거운 감자'

시, 재정난 이유 정부지원 'K-패스' 연계 '광주-패스' 도입…시민단체 반발

아동 우선시행 예산 13억 올렸지만 전액 삭감…시의회, 고3 우선 시행 요구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광주지역 아동·청소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애초 무상교통 동의 입장을 밝혔던 광주시가 역대급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가칭 '광주-패스'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 5월부터 어린이 무임교통 우선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 관련 예산 13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연간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청소년 무임교통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지만, 시의회에선 아동·청소년 전체 시행 또는 고교 3학년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아동 청소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K-패스' 정책과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광주-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액을 환급하는 'K-패스'에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만 연간 14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무임 교통 정책을 추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무임교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20억원이다.

지난해 어린이(만 6세~만 12세·9만8000여명)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88만여건으로, 요금으로 따지면 10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만 13세~만 18세·8만9000여명)의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090만여 건으로, 요금은 약 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애초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어린이 무임교통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청소년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된 상태다. 시의회는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이 6배 정도 많은 청소년부터 우선 지원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지원 요청 다수 발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증가, 시교육청의 지원 예산 분담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무임교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에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지하철만 무임교통이 시행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까지 무임교통을 확대하면 연간 13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역시 큰 부담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 올해 1424여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동·청소년, 어르신 무임교통 정책을 현실화하면 연 17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출해야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 비용과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출에다 추가로 무임교통까지 시행한다면, 광주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일단 정부 지원이 가능한 'K-패스'와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고, 추후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아동·청소년 무임교통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은 단편적인 교통정책도, 청소년 복지 정책도 아닌 복합적인 기후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YMCA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일회용품 규제 강화하라 한국환경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일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및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 한마리 9058만원

영암 서승민 농가 한우 '전국한우능력평가' 신기록

지난 1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한 2023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영암 서승민 농가의 한우가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9058만원의 신기록에 낙찰됐다.

1++A 등급에 출하체중(1028kg)과 도체중(647kg)이 다른 수상 한우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 도매가격(kg당 1만8000원)의 7.7배가 넘는 kg당 14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체외 및 외모심사, 도축성적 등을 한국종축개량협회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했다.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전국에서 268농가가 참여했으며, 전남은 40농가가 참여해 총 13개 상 중 가장 많은 3개 상을 차지했다. 이번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선 영암 서승민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농식품 장관상에 함평 나형규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에 화순 김정란 농가가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한우는 출하체중 927kg, 도체중 606kg으로 2558만7000원(4만2000원/kg),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수상 한우는 출하체중 938kg, 도체중 598kg으로 2177만9000원(3만6000원/kg)에 낙찰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가상자산도 압류

한가원-KCB 업무협약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19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자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등 숨겨둔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양육비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 4명 중 1명꼴 '갑질' 경험

79%는 '갑질 심각' 인식…부당한 업무지시, 폭행·폭언 꼽아

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36.1%),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49.8%였다. /연합뉴스

해남에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해남에 전남지역 5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해남읍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김수길 사단법인 위스타트 회장, 김성일 전남도의원, 정신정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2층 건물로 마련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1층에 심리치료실과 상담실 등을 배치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편안하게 상담받도록 조성됐다. 해남, 장흥, 강진, 완도, 진도 등 5개 군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4곳(전남·서부권·중부권·북부권)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했으나,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 수도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전남도는 남부권에 추가 설치하고,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고, 올해 1월부터 임시사무소에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 면 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소 등 첨단신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02-554-9685
번호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중앙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행운전력(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주원전기(이하 "을"이라 함)와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이하 "병"이라 함)는 서기 2023년 12월 2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각 각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병"에 합병하고, "갑"과 "을"과 "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3년 12월 21일
"갑" 주식회사 행운전력 (법인등록번호 : 205411-000697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령로 7
대표이사 박 남 수
"을" 주식회사 주원전기 (법인등록번호 : 205311-0015607)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68-2
대표이사 최 순 진
"병"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법인등록번호 : 175511-0012474)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68-2
대표이사 곽 우 희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3년 12월 07일 주주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주식회사 천지정보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82
청산인 최 선 옥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

71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